

관상적가치가 큰 1400여종에 2만여점의 화초들

전국 화초 전시회에서

공화국창건 66돐을 맞으며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는 화초생산 단위일군들과 근로자들, 화초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전국화초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성, 중앙기관들, 평양시와 각 도의 많은 단위들에서 마련한 1400여종에 2만여점의 화초와 꽃관목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에는 화초와 꽃관목들로 다채롭게 장식된 분재, 분경 등 특색있는 전시품들과 여러가지 꽃씨, 꽃씨를 제작기술을 담은 CD들이 출품되었다.

분재는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을 적당한 화분에 심어 그의 생육을 제한하여하면서 조형예술적으로 가공하여 오래 묵은 식물과 같이 느끼도록 만든 관상식물이다. 평양철도국에서 내놓은 불가시나무분재 조선지도 《하나》는 조형예술적기교와 식물재배기술을 잘 배합하여 만든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42년간 자란이 불가시나무분재는 이곳원에사업소의 최명순원사가 통일된 조국땅을 마음껏

누비고싶은 철도부민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마음을 담아 창작한것으로서 높이 2.56m, 너비 1.36m나 되는 대형분재이다.

지난해 전국화초전시회에 출품하여 특등상을 받은 이 불가시나무분재와 함께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마을들마다에 펼쳐진 회한한 전경을 화폭에 담은 《산경마을분경》을 만들어 내놓아 이번 전시회에서 기술상을 받았다. (분경은 나무나 돌을 소재로 예술적처리와 섬세한 재배를 통하여 화분속에 대자연의 전경적인 면모를 집약적으로 재현한 예술작품, 자연풍경에 대한 립체적예술작품이다.)

전국화초전시회장에서 우리는 화초애호가들도 만나보았다.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동에 사는 박상복(43살)은 《어릴 때부터 화초를 좋아하였다. 학교로 오다가다도 이름다운 꽃을 보면 집터밭에 옮겨심고 관찰하곤 하였다. 지금은 두자식을 거느린

가정주부이지만 가정에 많은 화분들을 갖추어놓고 꽃을 가꾼다. 하지만 새 품종의 화초들에 대한 파악이 없다니나 이를 먹을 때도 없지 않다. 이번에 전국화초전시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와보니 새 품종의 꽃들도 많고 화초재배기술도 배

울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하였다.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 1동에 산다는 최성희녀성(45살)은 《꽃매대에서 일하고있는데 사람들이 화초가꾸는 방법을 물을 때마다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와 잠이 오지 않



선조들이 지켜온 물가질레절

에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몸가짐과 행동거지를 바로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자각하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격몽요결》과 같은 문헌들에서는 《구용》(9가지 모습이라는 뜻)이라고 하여 몸가짐, 행동거지와 관련한 계절의 내용을 서술하고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것을 보면 《죽용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옷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옷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친다.), 《목용단》(눈은 단정하고 공개 뜬다. 치사름을 치를 때의 경우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다.), 《구용지》(입은

조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다.), 《두용직》(머리를 곧게 바르게 가져 의정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엄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고독하고 덕성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이러한 몸가짐레절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고 앉는 자세와 동작이 단정한것을 들 수 있다.

레절에서 서고 앉는 자세란 옷사람앞에서나 대사를 치를 때의 경우를 넘두에 두었다. 서는 자세를 취할 때 두발은 약

간 옆으로 벌리는데 앉을 때 엇갈리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두손은 앞으로 모아치고 무릎과 허리는 자연스럽게 곧게 뻗었다. 눈은 곧게 뜨고 옷사람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게 하였으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물고있는 자세를 취하였다.

앉는 자세도 레절바르게 하였다. 옷사람과 앉을 때에는 옷어른의 정면이 앉고 앉는 옷사람의 왼쪽앞에, 너자는 오른쪽앞에 앉았는데 그것도 옷사람이 권해서야 앉았다.

본사기자

정직, 진실성

《정직한 사람의 지식은 굵어죽지 않는다.》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남의 사랑을 받고 동정을 얻게 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눈앞에서 자랑 말고 뒤에서 꾸짖지 말라.》 앞에서는 아무하고 뒤에서는 헐뜯는 간교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여 이르는 말.

《내 물건이 좋아야 값은 받는다.》 재물이 몇몇해야 남에 대해서도 몇몇하라는것을 이르는 말.

연구자들이 4층이상의 고층살림집에서 사는 주민 약 15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살림집의 층이 높을수록 예상수명이 길다는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즉 장수의 비결은 높은 층의 살림집에서 사는데 있다는것이다.

살림집환경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간주되

는다. 그래서 참고서적들도 많이 보곤 하는데 이런 전시회가 열릴 때면 빠짐없이 참가하여 하나라도 알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곳을 찾은 각 기관, 기업소의 화초생산자들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법주사 쌍사자돌동

평양민속공원에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것을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놓은 법주사쌍사자돌동이 있다.

쌍사자기둥형식의 이 돌동은 8각의 납작한 바닥돌위에 두마리의 사자가 서서 뿔뿔을 새긴 둥근 밑단을 뒤발로 뻗치고 앞발과 주둥이로 뿔뿔꽃기둥머리인 불집대들(뿔뿔받침대)과 불집돌을 기운차게 떠받치고있는 모양으로 형상되어있다. 두마리의 사자가 떠받치고있는 뿔뿔받침대우의 불집돌은 8각정자 건물형식으로 생겨 경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8각형의 지붕돌우에는 둥근 보루가 놓여져있다. 이 돌동을 보는 사람들은 그 기묘함에 경탄을 금치 못하곤 한다.

《역센 근육과 크게 벌린 입사이로 보이는 이발들, 든든한 발동, 굳센 발동들은 맹수의 특징과 운동감을 얼마나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는지 사자조각이 금시라도 살아움직일것만 같다.》

《두마리의 사자가 무거운 불집을 떠받치고있자니 참 힘들겠다.》

...

쌍사자돌동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하는 참관자들에게

안내원은 《이 쌍사자돌동은 돌들을 붙여서 형상한것이 아니라 큰 통돌로 기둥일단인 받침돌과 두마리의 사자 그리고 기둥머리인 불집대들까지 다들어낸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띠답니다.》라고 설명해주었다.

조각가의 세련된 기교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높이가 3.3m인 이 돌동은 착상이 기발할뿐아니라 조각이 실감있고 생동하며 매개 부분들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

자료에 의하면 8세기초에 만들었다는 원래의 돌동은 법주사의 희귀한 나무탑인 팔상전주위에 있다고 한다.

법주사에는 주로 팔상전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쌍사자돌동, 서쪽에는 사천왕돌동, 팔상전 동쪽과 념화실앞쪽에 한 개씩의 돌동이 있다. 그 개의 돌동가운데서도 북쪽에 있는 이 쌍사자돌동이 유명하여 걸작으로 손꼽

히고있다. 한개 사찰에, 그것도 5층의 높은 팔상전주변에 여러개의 돌동을 만들어 세운것은 밤에 불을 켜고 밤을 지새면서 불교의식을 하자는데도 있었지만 더우기는 사찰의 위세를 돋구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법주사쌍사자돌동을 보며 참관자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선조들의 우수한 조각술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훌륭한 미술형식－조선화

조선화는 동양화의 일반적 특성을 띠면서

도 우리 겨레의 고유한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담고있는 우수한 회화형식으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화는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간결하고 섬세하게 그려지는 뛰어난 예술적특성을 가지고있다.

특히 함축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조선화법에는 형태와 선색, 명암을 우리 겨레의 미감에 맞게 생략하면서 화면구도를 간결하게 하고 대상의 질적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조선화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오랜

높았다.

그 원인은 낮은 층에서 사는 주민들이 대기오염이나 소음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데 있는것 같다.

한편 높은 층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즉 꽃가루알레르기 등 알레르기를 앓기 쉽다.

본사기자



조선화 《범》

양서방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즉시에 기슭으로 향하였다. 기력이 다 빠져버렸는지 양서방의 몸은 바다 밑으로 어떤 억센 힘이 끌어내리더라도 하는듯 천근무게로 자꾸만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아무리 팔다리를 놀리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그것은 이미 마음과는 달리 헛동작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월정사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 시각까지 몸배에 있는 힘을 강그러다 쏟아버리고 오직 의지의 힘으로만 최후의 계신까지 지탱하였던 것이다. 광복절으로 마지막 힘까지 강그러 소모해버린 그에게 있어서 지금 물을 이길 힘은 이미 없었다. 드립다코로 물이 밀려들었다. 그럴수록 정신이 더욱 흐려졌다. 아, 기슭, 구원의 기슭은 아직도 먼데...

신암동사나이들이 달려왔고 뒤를 이어 금산포사람들 몇이 뒤를 따라와 양서방을 건져냈다. 양서방은 입에 뱀뱀을 뱉아놓고 숨을 거두었다. 포구에 금산포 사공 한사람이 정신없이 쓰러져있었다. 온몸이 파르르 떨고있었는데 그에게는 약간의 숨이 있었다. 신

암동, 금산포사람들이 그를 급히 마을로 옮겨다놓고 즉시 응급대책을 취하였다. 새벽녘에야 정신을 차린 그는 이런 사연을 전하였다.

...어제 저녁 해가 수평선을 넘어설 립박에 왜놈헌병 다섯놈이 달려들었다. 놈들은 여기에서 사모심리 안락인 남포까지 가서는 곧 돌려줄터이니 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포구에는 바다에서 늦게 돌아온 나뭇배에 다른 사공은 없었다. 말이 빌린다는것일뿐 일단 타고가버린 다음에는 되돌려줄 놈들이 아닌줄 알았기에 나는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러자 놈들은 나를 총창으로 찔러 꺼꾸러뜨린다음 배를 강제로 빼앗아라고 가버렸다. ...

후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남포에 등지를 틀고있던 왜놈헌병대장이란 놈이 많은 총병을 이 땅의 문화적락탈에 내몰았는데 자기네 상관의 명령을 받은 한무리의 왜놈헌병들이 안악3호무덤을 들이치고 또다시 월정사 부처의 백호에게까지 더러운 손을 뻗었던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불목하니일망정 단군민족의 피를 이어받고 이 땅에 태를 묻은 조선의 사나이인데라 어찌 배호하나인들 용납할수 있으리오. 정령 시조의 녀과 얼을 목숨으로 여기는 이 나라 백성들인데야...

(끝)

사화

불목하니 (4)

글 리 빈, 그림 김 윤 일

《백호라는게 뭐요? 흰뱀?...》

대답이라고 하는 녀인의 이 물음에 양서방은 몹시 실망했다. 속에서 불이 이는것만 같았다.

(아, 백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무슨 말이 통한담!)

그러나 양서방은 여기서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똑똑히 깨달았기에 서산마루에 걸린 해를 초조히 바라보며 어떤것을 백호라고 하는가,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 국보인가를 다급히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가 말끝을 채 맺기도 전에 종년녀인이 벌칙 문을 열고 나오며 《알겠어요. 긴 말 할새가 없구만요. 우리 동네 남정들은 늑이든 짐승이건 동맹 산너머 초상집에 다 갔어요. 내가 빨리 가서 그대들을 금산포로 보낼테니 거기선 왜놈들 뒤를 쫓으세요... 어떻게 하든 왜놈들이 배를 타지 못하게 수를 쓰면서 우리 사람들을 기다려라요.》라는 숨가쁜 말을 뒤로 남기고 눈발길로 내달렸다.

나라의 국보를 위하는 자기의 마음을 늦게나마 알아준 녀인이 고마워 눈곱을 적시며

양서방은 왜놈들의 발자국을 따라 출달음을 쳤다. 양서방이 금기야 금산포부락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해가 수평선을 넘어선 뒤였다. 날씨는 차갑고 해도 저물어서인지 부락에는 개 그림자하나 얼씬하지 않고 쥐죽은듯싶은 고요만이 깃들여있었다.

여기서는 이 고장 사람들의 발길에 눈덮인 길이 뚝뚝히 다져있어 왜놈들의 발자국을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 끝내 놈들의 종적을 잃어버리게가 싫어 당황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면 양서방의 눈길이 해변가 포구에서 딱 멎어버리고말았다.

《아니?! 저놈들이?》 크고작은 배 몇척이 떠있는 포구에서 놈들이 부산산세로 돌아치고있었던것이다. 시누런 군복을 입고 기다란 보총을 멘 놈들의 모양은 퍼그나 먼 거리에서도 형체를 똑똑히 알아볼수가 있었다. (저놈들이 정말로 배를 타고 달아나려하구나!) 눈앞이 캄캄했다. 뒤따라올 신암동사람들을 기다릴 사이조차 없었다. 여기 사람들 찾아다닐 겨를은 더더구나 없었다. (어쩌면 종단 말인가? 어

쩌면...) 헌병놈들이 드디어 어느 배우로 모두 기여올라 외대배기 뿔대에 돛을 올리자 배는 곧 기슭에서 떨어졌다. 뿔개줄 뿔뿔 배를 향해 내달려 기슭에 닿은 양서방은 두루마기와 솜바지저고리를 벗어 활활 벗어붙이며 목청껏 웨쳐댔다.

《여보시오, 헌병나리들! 큰 일이 생겼소이다. 내 말을 좀 들으시오이다.》 어느덧 활 한바탕 남짓이 떠가던 배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왜놈들이 뿔뿔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도 배는 가던 힘에 끌려 미끄러져갔다. 양서방은 다시금 손나팔을 입에 가져다대고 큰소리로 웨쳐댔다. 《이보시오, 헌병나리들, 당신들앞에 큰 변이 닥쳤소.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일본사람이요.》 일본사람이요. 그대들이 배를 타고 오셨다는 소리에 질질한 모양으로 왜놈들 다섯이 전부 그앞으로 황급히 밀려들며 《뿔 배를 탄 폭도들이요,》 《우리 앞을 막는 폭도들이 의병출신이라고?》, 《너 일본사람?! 그대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건가?》 하며 죽을상이 되어 저저마다 아부제기를 쳤다. 그바람에 작은 배는 양서방쪽으로 속 거들어졌다.

순간 양서방은 몸을 힘껏 솟구쳐나가 떨어지며 배전을 《광!》 소리가 나게 세계 내리눌렀다. 그바람에 배가 왈

는 당신네 모두가 ... 폭도들한테 잡힐쥬수가 있소. 내 말을 들어야... 그것을 피할수가 있소!》

양서방은 물속으로 속 들어갔다가는 솟구쳐오르고 또 잠기며 간신히 한두마디씩 던졌다. 추운 겨울 차가운 물속에서 늑이든 짐승이든 어느 순간에 마비가 들이닥쳐 영영 물속에 잠겨버릴지도 몰랐다.

양서방은 금시 숨이 넘어갈듯 어수! 어수! 하고 뻥속 입안의 물을 뱉어내며 간신히 배에까지 이르렀다. 덜치듯 배전을 움켜잡은 양서방은 혁, 혁 숨을 몰아쉬며 《난... 일본거류민... 사부로... 폭도들이 배를 타고 당신들앞을 막으려 하오 그들의 손에 걸리면... 다 죽소, 그들은... 반일의병대출신 폭도들...》하고 덤벼쳤다.

다 죽는다는 소리에 질질한 모양으로 왜놈들 다섯이 전부 그앞으로 황급히 밀려들며 《뿔 배를 탄 폭도들이요,》 《우리 앞을 막는 폭도들이 의병출신이라고?》, 《너 일본사람?! 그대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건가?》 하며 죽을상이 되어 저저마다 아부제기를 쳤다. 그바람에 작은 배는 양서방쪽으로 속 거들어졌다.

순간 양서방은 몸을 힘껏 솟구쳐나가 떨어지며 배전을 《광!》 소리가 나게 세계 내리눌렀다. 그바람에 배가 왈

락 뒤집어지면서 배전에 몰려섰던 놈들이 몽땅 물속에 처박혔다. 칼을 차고 총을 멘 채로 솟으투를 입은 놈들은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며 무력대고 허우적거렸다. 이때 양서방의 격분에 찬 호통소리가 물가에 울려 퍼졌다.

《백호를 가진 놈은 살려 줄테니 어서 나서라. 누가 가겠느냐?》

그러자 저마끔 살쾅다고 해담이며 악마구리 뿔뿔 날 쳐대던 놈들가운데서 한놈이 《백호? ... 내게 있소. 살려 주. 살려주거만 하면 그 은공을 백배로 갚겠소. 꼭 갚겠

소!》라고 반색하며 애원하였다. 이 말을 내려뱉는 사이에도 놈은 몇번이나 팔각 팔각 물을 들이키며 물속에 잠겼다가 허우적허우적 솟아오르곤 하였다.

양서방은 굵히 그놈에게로 헤엄쳐갔다. 《백호를 꺼내보여라. 그 배야 내가 밟겠다!》 《에... 에...》

놈은 헤엄치며 한손을 가슴의 옷깃속으로 밀어넣었다. 했으나 무엇인가를 움켜쥔 주먹이 속옷깃에 걸려 빠져 나오지 않아서인지 놈은 얼얼이 새까맣게 질려 마구 덤벼쳤다. 양서방이 놈의 손목을 잡아당기자 주먹안에 흰 형글구레미가 튀어있었다.

양서방은 있는 힘을 강그러 모아 다리해염으로 몸을 유지하면서 형질을 헤쳤다.

백호가 번뜩이며 눈에 띄우자 양서방은 그것을 얼른 입안에 집어넣었다. 손에 쥐고는 헤엄치기도 어렵거니와 뿔뿔 위험이 있었기때문이었다.